

# 아카렌가 통신



제 62호

2019년 12월 10일

편집발행인 국제교류원 김소현

홋카이도는 여느 지역들보다 이른 겨울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눈이 쌓였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커튼을 열어보는 것이 요즘 저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추위 속에서 곳곳이 겨울을 나는 단풍잎들을 볼 때면, 저물고 싶지 않은 가을의 아쉬운 마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지난 두 달 간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릴게요.

## 인터내셔널 위크 2019 개최 (SEOUL DAY)

### 미르메 선수단 익스트림 태권도 공연 선보여

인터내셔널 위크를 아시나요?

이는, 여러 나라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올해도 11월 20일부터 3일간 삿포로역 지하보행공간에서 '인터내셔널 위크 2019'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한국 홍보 부스에서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제공받은 가이드북, 관광지도 등을 배포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위크의 볼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행사에 참가한 나라들의 특색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올해 박력이 넘치는 '익스트림 태권도'를 선보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익스트림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매력을 전파 중인 미르메 태권도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홋카이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미르메 선수단은 인터내셔널 위크 본공연을 앞둔 20일 오전, 삿포로시에 위치한 홋카이도 무사시 여자 단기대학을 방문하여, 태권도 체험수업 및 익스트림 태권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5명의 선수들 각각의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은 우선 즐겁게 몸을 풀고,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연습한 후, 마지막으로 송판 격파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태권도 체험 수업이 끝난 후에는, 기념품으로 증정한 에코백에 선수들의 사인을 받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미르메 태권도팀은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편, 20일 오후, 인터내셔널 위크 행사장에서는 한국 전통음료인 '식혜' 시음 및 익스트림 태권도 공연과 더불어, 서울Day를 맞이하여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의 수도 '서울'의 매력에 대해 소개하는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 리츠메이칸 게이쇼 중학교 방문

11월 5일, 리츠메이칸 게이쇼 중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둔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과 자기소개, 일상 회화 등을 강의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긴 했지만, 한국어 공부에 열중한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 인터뷰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파견된 인재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은 성장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며, 추억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1. '귤이 유명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2. 의외로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마지막 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과 모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외국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나에게 '배소담'이라는 한국 이름이 생겼다. (스카이 리마)



1. 제주도는 한적한 농촌 같은 곳과, 잘 개발된 지역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2. 일본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한국인 친구로부터, 센터시험도 수능시험처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 입시가 더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외였다. 3. 발표 준비를 할 때, 본인이 리더를 자청하며 팀을 이끌어준 친구가 있었다. 그런 리더십을 받고 싶다. (호리타 가나에)



1.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곳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는 홋카이도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2. 한국 학생들은 우리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긴 것 같다. 그리고 남자들은 스무살이 되면 입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고의 차이를 느꼈다. 3. 문화에 대한 발표를 들으며, 문화의 관용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후지타 아키히로)

<Question>

- 1. 처음 가본 제주도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2.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발견한 양국 학생들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3. 이번 포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10.31~11.4) 참가자들의 활약상

## 한국어 회화 강좌

5주 동안,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회화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첫 만남, 식사자리, 술자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칭들과 한국어 표현, 생활 회화 등을 학습하며, 일본과는 조금 다른 한국의 관습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 2019 제주영화제 참석

2019년 11월 28일(목)~12월 1일(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2019 제주영화제'에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듀서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섬의 지역적인 고유성을 존중하며, 섬지역의 영화를 발굴하여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홋카이도가 우호지역으로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제주도에서 촬영된 영화 감상 및 로케 장소 시찰, 프로그램 중 한 가지인 '아일랜드 시네마 포럼'에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소개하는 등, 제주 지역의 영화인들과 돈독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폐막식에서는,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고, 리셉션에서 향후 양 지역의 영화제 교류 촉진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영화'라는 매개체가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우호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